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 특징

최 충 혁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평이 없이는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24페이지)

문학비평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학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역사적으로 문학은 문학비평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왔다.

문학비평을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문학비평의 본질과 특성을 잘 알고 문학평론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과 함께 선행시기 비평의 연구성과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학비평발전에 대하여서도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도 문학비평은 문학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으며 중국문학비평사연구는 중국문학사연구를 심화시키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외국문학연구분야의 성과를 풍부히 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가 거의나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연구론문도 나온것이 별로 없다.

더우기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 대해서는 중국국내에서도 일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당시의 문화발전과의 련관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분석평가하지는 못하였다.

한나라시기(B.C.206—A.D.220)는 중국문화 및 중국문학비평발전의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 비평은 진나라이전시기의 맹아적인 문학비평으로부터 위진남북조시기의 독자적인 문학비평으로 발전하던 과도적단계의 비평으로 된다.

이로부터 이 글에서는 중국문학비평사연구의 일환으로서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정을 당시의 사회문화적배경과의 련관속에서 분석하며 비평내용과 형식에서의 특성을 해명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발전의 사회문화적배경과 그 단계별특징

한나라문화의 발전과정은 황로(황제와 로자)의 도학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학파들을 경시하고 유교학술만을 존중하며 유교의 패권적지위가 보장되어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경

학으로 발전하였다가 경학이 다시 참위학(일식, 월식, 지진 등으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방법을 론하는 비과학적인 학문)과 합류되고 종당에는 쇠퇴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문학비평발전과정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 단계는 황로의 도학이 지배적이었던 한나라초기이다.

한나라초기(B.C.206-B.C.140) 통치자들은 진나라(B.C.221-B.C.206)말기 농민폭동과 진나라의 급속한 멸망에서 교훈을 찾고 근로대중의 반항의식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완만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는 로자의 《무위이치》(사람들을 자연적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정치)에 법가사상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결합시킨 《황로지학》(황제와 로자의 학문이라는 뜻)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와서 경제는 진나라시기에 비해 발전하였고 정치는 비교적 공고해졌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B.C.145-?)의 아버지 사마담은 한나라초기 황로의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인 룡가의 사상을 론한 《 룡가의 요지를 론함》이라는 글에서 여러 학파들에는 모두 결합들이 있었으나 오직 도가만은 여러 학파들의 장점과 결합들을 모두 취하여 어떠한 편견과 폐단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초기 정치적으로 황로의 도학이 우선시되면서 문학비평은 그 영향을 받아 주로 황로의 도학관념이 반영된것이 특징이다. 굴원(B.C.340경-B.C.278경)에 대한 가의(B.C.200-B.C.168)의 평가로부터 아름다움과 추한것에 대한 류안의 서술과 한무제시기에 산 사마천의 문예리론에도 모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

둘째 단계는 경학이 지배한 서한 중엽 및 말기(B.C.140-A.D.8)이다.

한무제(B.C.156-B.C.87)가 즉위할 시기에 이르러 한나라의 경제는 일정하게 회복되고 국고에는 물질적부가 축적되었다. 황로의 도학은 근로대중의 반항의식을 무마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통치체제를 강화할수 없는 난점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무위이치》의 사상과 정책은 더는 통치체제를 강화하려는 통치배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게 되었다. 전제통치에 적합한 《정통의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무제때 사람들사이의 등급차별을 절대화하는 기만적인 통치를 설교하는 유교를 국교로 내세웠다.

동중서(B.C.179-B.C.104)가 한무제에게 내놓은 《백가를 배척하고 유교만 숭상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상적전환의 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한무제의 동의를 얻었다. 이때부터 유가의 다섯가지 경전은 《5경》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유가경전저작들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인 《경학》이 나오게 되었다. 유학자들은 대다수가 경전을 옹고그림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준으로, 학술사상의 근본원천으로 보았으며 유가경전에 주해를 달고 해석하고 그것을 발양시키는것을 가장 기본적인 학문탐구의 방법으로 보았다. 이때부터 《유학》은 많은 경우 《경학》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발전하였다.

경학은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여 한나라시기 문예창조의 기본준칙으로 되었다.

양웅(B.C.53-A.D.18)은 《5경》에는 이미 모든 류형의 글이 다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5경》의 글을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한나라시기 경학연구는 주로 진나라이전시기의 경전들에 대한 정리와 경전의 의미에

대한 해석령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문학비평분야에서는 진나라이전시기부터 내려오는 문학비평리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서술하는 활동이 벌어졌다.

실례로 한나라시기 《5경》의 하나인 《시경》에 대한 연구가 전례없이 활발히 벌어졌다.

문학비평이 주로 경전을 증시하고 고대《성인》들의 《훈시》를 존중하며 경전에 의거하여 전개된것은 이 시기 비평의 주되는 특징으로 되었다.

셋째 단계는 참위학이 지배적이었던 동한시기(25-220)이다.

경학의 대표자인 동중서가 음양오행설로 경서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면서부터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학은 옛글의 문장이나 따고 자질구레하고 부차적인것을 모방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이것으로 하여 침체와 미신의 미궁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동한시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정통학술인 금문경학이 당시 유행되던 참위미신과 결합되어 비과학적인 참위학으로 변이되었다.

한나라 장제시기에 이르러 여러 유생들을 《백호관》이라는 학당에 모아놓고 참위학으로 경전을 해석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력사가이며 문학가인 반고(32-92)가 기록하고 정리한것이 《백호통의》라는 책이다. 이때부터 참위학으로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학술기풍이 크게 유행되었다.

반고는 참위학의 옹호자이고 선전자였다. 반고는 유학사상으로 작가와 작품들을 평가하는데서 신학적이고 미신적인 색채를 부여하였다.

참위학은 황당한 미신사상으로 일관되어있는바 그 목적은 《천자》와 《성인》을 신성화하고 봉건적신분제도와 통치질서를 유지 공고화하자는데 있었다.

이러한 신화화경향은 문학비평을 신비스럽고 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며 그것은 문학비평의 발전에 커다란 부정적작용을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시기 적지 않은 작가들의 글은 진실감이 부족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기만 하며 옛것을 모방하고 답습한것들도 많아 창조성이 크게 결여되어있었다.

참위미신의 유행은 필연적으로 반참위, 반미신사상을 산생시켰으며 그 과정에 참위를 반대하고 황당한것을 타매한 환담, 왕충 등과 같은 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 환담은 《참위로 경전을 해석할수 없다.》(《후한서·환담전》)고 과격한 언사로 론박하였으며 왕충(27-97경)은 참위학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된 비평집 《론형》을 내놓았다. 왕충은 《론형》에서 《황당한것을 타매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참위미신사상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로부터 일련의 문학비평사상을 내놓았다.

참위학과 결부된 동중서, 반고 등의 비과학적이며 보수적인 문학비평과 반참위, 반미신사상을 고취하는 왕충 등의 진보적인 문학비평이 대립되어 나타난것은 이 시기 문학비평발전의 특징이다.

2.2.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서 제기된 비평적론의의 기본내용

한나라시기에 비교적 뚜렷한 체계와 내용을 갖춘 비평적론의를 전개한 비평가들로는 한나라초기의 가의와 서한 중엽시기의 사마천, 동한시기의 정현과 왕충을 들수 있다.

이들의 비평적론의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는 저서들로는 《사기》, 《론형》, 《시대서》 등을 들수 있다.

물론 진나라이전시기의 문학비평리론을 전제로 하여 발전한 한나라시기의 문학비평리론은 정론문과 경학, 력사산문, 철학 등이 혼합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레하면 가의, 사마천, 반고 등의 문학비평리론은 그들의 정론문과 력사산문의 한 부분이고 동중서, 왕충 등의 문학비평리론은 그들의 철학의 한 부분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서들에 산재되어있는 여러가지 비평적론의들을 몇가지로 체계화하여 언급할수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밝히면서 그것을 경학, 력사학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하여 인식하려는 일련의 긍정적인 시도들이다.

한나라시기문학에는 시가외에도 사부, 산문이 있었는데 모두 순수한 문학양식으로서 학술리론저작들과 크게 구별되었다. 문학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는바 특히 부의 대량적인 창작은 문학의 예술적특징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가들은 점차 인식적측면에서 문학을 경학과 력사학, 제자학과들의 학술저작과 구별해보기 시작하였다.

한나라시기에 이르러 《문학》과 《문장》 혹은 《문》이라는 개념이 서로 구별되어 쓰이였다. 이 시기 《문학》이란 일반적으로 학술저작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실례로 《사기·효무본기》에는 《유교의 학술을 중시하고 어진이들을 불러들이었으니 조관, 왕장 등이 문학으로 공경의 벼슬에 올랐다.》고 기록되어있는바 이때의 《문학》은 경학을 가리켰다. 《사기·조작렬전》에는 《조작은 문학으로 태상장고로 되였다.》라고 썼는데 이때의 《문학》은 사학 즉 력사학을 가리켰다. 《문장》, 《문》은 문학작품을 가리켰다. 레를 들어 《론형·서해》에서는 《한나라시기 문장을 다룬 사람들로는 룡가, 사마천, 류자정, 양자운... 등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한서》에서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문학을 《문장》이나 《문》으로 표현하였으며 《문학》이나 《학》은 학술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칠략》을 써낸 류흠은 《시부략》을 《륙예략》, 《제자략》과 동등하게 서술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문학과 학술을 구분한것으로서 진나라이전시기 문학과 력사, 철학을 한데 뒤섞어 론한데 비해 일정한 발전으로 된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력사발전과정에서 문학이 자기의 기능과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는데 맞게 문학이 사회적의식형태중의 독자적인 분야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였다.

또한 문학의 본도에 대한 유교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견해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비평적론의들이 있었다.

서한중엽의 시학론문인 《시대서》에서는 시문학의 본도에 대하여 《시는 곧 뜻의 발현이다.》라고 하였다.

《시는 곧 뜻의 발현이다.》(시언지)라는 견해는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며 이미 진나라 이전시기 고대문헌인 《좌전》에서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장자, 순자 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들의 세계관으로 보아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을 문학의 본도로 여긴 긍정적인 견해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뜻》이란 현실생활에서 느낀바 그대로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유교경전이 문예창조의 기초적원리로 된 서한 중엽 및 말기에는 문학의 본도에 대한

견해에서도 선행시기 유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런가 하면 참위학이 지배적이었던 동한말기에는 문학의 본도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두하였다.

문학의 본도에 대한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비평적론의를 전개한 대표적인 비평가는 동한말기의 왕충이다.

당시 특권을 옹호하는 관념론적이며 종교미신적인 경학사상을 반대한 대표적인 유물론자이며 비평가인 왕충은 문학에 대한 종교적이며 신비주의적외곡을 타파하고 그에 대한 옳은 견해를 확립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한나라시기 비평적론의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론의이다.

사마천은 분노가 글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발분저서설》을 내놓았다. 그것은 공자(B.C.551—B.C.479)의 시로써 풍자할수 있다는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것으로 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도교의 특성에도 부합되는것으로서 유교와 도교를 결합시킨데서 나온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세계관적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정신을 가진 시문학의 기능에 대하여 론한것은 일정하게 의의가 있다.

동한말기 경학가인 정현(127—200)은 시에는 《긍정》과 《부정》의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대의 《옳음과 그름》에 따라 시가의 《긍정과 부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긍정》의 시는 의심할바없이 《태평성세의 노래》이며 《부정》의 시는 《어지러운 세상의 노래》라고 하였다.

물론 정현의 견해는 문학을 지배계급의 통치리념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본 제한성은 있으나 문학과 시대현실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시를 론하면서 시가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정신을 가지고있으므로 부정을 비판하고 긍정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것은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2.3.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특징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은 그 문예리론에서 취급한 내용은 물론 비평전개방식과 비평형태에서도 진나라이전시기 문학비평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진나라이전시기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비평전개방식에서 이전시기에 비하여 비교적 론리가 짜이고 체계정연하며 원리적인 분석평가로 일관되어있는것이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리론의 독자성은 진나라이전시기 제자학과들을 크게 룡가하였다. 진나라이전시기의 문학비평리론에는 많은 경우 제자철학이나 력사전기과 혼합되어 그 론술에서 독자적인 의식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한나라시기에는 그 리론서술에서 비교적 강한 독자성을 보이고있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존재형식은 대체적으로 진나라이전시기 문화와 경전의 여러 문제들속에 붙어서 존재하는것이였으나 문학리론 및 비평학설은 결코 《시경》이나 《론어》식의 몇마디 말이나 《맹자》나 《장자》식의 분산된 몇개의 단락이 아니였다. 그것은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한개 혹은 몇개의 문학리론이나 비평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글들이었다.

이러한 문학비평에서는 진나라이전시기의 분산적이고 짬막하며 학술비평에 겨묻혀있던 느낌을 더는 찾아볼수 없으며 문학비평이 기타 학술활동들과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예대지》 등 문학비평리론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서술한 글들을 들수 있다.

그 이후의 문학비평가들은 《한서》의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여러 문체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부류별로 역사적발전과정에 대해 분석하곤 하였다.

한나라시기 사서에서 리론의 서술은 진나라이전시기의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토막토막의 론의와 비해볼 때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룩되었으며 이 과정에 단독으로 문학비평리론을 서술한 글들과 도서들도 나왔다.

전문적인 시학론문 《시대서》와 왕충의 비평집 《론형》의 출현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의 유학자들이 《시경》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생겨난 《시대서》는 중국시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문론제를 단 론문이다. 이전시기의 시론들은 모두 경서, 사서, 제자서 등에 드문드문 끼여있는 한두마디의 짬막한 글들이었다면 《시대서》는 이러한 짬막한 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시가의 본질과 창작수법, 사회적기능 등을 론술한것으로서 진나라이전시기 및 한나라시기 시학리론의 집대성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리론의 독자적인 측면과 체계정연한 특징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특징은 또한 비교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비평형태들이 다양하게 출현한것이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형태는 크게 문학론설과 작품평, 작가론평으로 이루어져있다.

한나라시기 문학론설과 작품평은 경서, 사서, 제자서, 문집 등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진나라이전시기와 비해볼 때 한나라문인들은 이미 문학과 그 리론비평에 보다 큰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돌렸다.

한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논의한 반고의 《량도부서》, 악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마천의 《한서·예문지》, 초사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평가한 왕일 등의 론설형식의 비평들은 비교적 체계화되어있고 그 론점도 명백하다.

시가를 전문론제로 하여 논의한 작품평들 레하면 시가집 《시경》을 비평한 《모시서》, 《모시대서》, 《소서》, 《모대서》, 《모전》, 《모시전전》과 정현의 《시보서》도 론점이 명백하고 체계정연하다.

작가론평은 주로 굴원이나 가의, 사마상여, 조작 등 이름난 작가들의 생애와 활동, 문학사적공적에 대한 평으로 주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채를 띠고 활발히 전개된 작가론평은 주로 굴원에 대한 평이었다. 그러나 굴원에 대한 평가는 같지 않았으며 시대를 달리하는 학파들의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주어졌다.

력사학자인 사마천은 《사기》에서 문학가에 대한 첫 전기인 《굴원가생렬전》을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굴원의 작품인 《어부》와 《회사》, 가의의 작품인 《조굴원부》와 《부조부》가 수록되어있으며 이것은 사마천이 굴원과 가의를 사부작가로 인정하고 작가론적인 평을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마천은 문학가들을 위해 전기를 써냈으며 후세의 력사가들은 그것을 저저마다 모방하였다.

반고는 《한서》에 《사마상여전》, 《양웅전》을 설정하였다.

왕충은 《론형》의 《예증》과 《초기》 두편의 글에서 비록 문학문제를 전문적으로 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자는 비교적 집중적으로 《시경》의 과장수법에 대해 론하였고 후자는 재능을 가진 작가의 심리적자질과 그 평가표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론하였다.

이처럼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은 진나라이전시기 문학비평의 기초우에서 비평리론의 체계성과 내용, 형식 등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은 위진남북조시기(220—581) 문학비평리론의 토대로 되었다.

한나라시기에 이르러 중국문학비평은 비로소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자체의 비평형태와 서술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3. 결 론

날로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외국어교육부문에서 외국어뿐만아니라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력사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중국문학사과목은 중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서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사과목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중국문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연구분야이다.

중국문학비평의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시기는 문학비평리론이 이전의 맹아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여 여러가지 문체의 비평글들이 나온 시기로서 이 시기에 대한 문학비평발전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론문에서는 이 시기 문학비평을 분석하는것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이 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 문화적배경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시기 문학비평에서 나타난 일련의 특징들을 밝히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문학비평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확대하며 그것을 교수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외국관계전문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이며 높은 외국어실력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학비평, 한나라시기문학, 중국문학비평사